



이동통신 기업들이 3년 만에 글로벌 모바일 전시회 'MWC'에 참가해 신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SK텔레콤(왼쪽)과 KT의 전시관 조감도.



사진제공 | SK텔레콤·KT

## SKT·KT 3년 만에 출격...신기술 향연 펼친다

SKT, 메타버스·UAM 등 기술 소개  
KT, AI 방역로봇 등 3개 전시존 마련  
LGU+는 참관단 보내 5G 협력 논의

국내 이동통신 기업들이 3년 만에 글로벌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가한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최하는 MWC는 통신사와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방향과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다.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번 MWC 주제는 '연결성의 촉발(Connectivity Unleashed)'이다. 세계 200여 개국 1500여 개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이동통신 기업들도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로봇 등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SKT, 메타버스·UAM 등 알려  
SK텔레콤은 이번 MWC에서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진화 방향을 알리고,

글로벌 초협력력을 확대한다. 행사의 핵심 전시장인 '피라 그란 비아' 제3층 중심부에 전시관을 마련해 메타버스와 AI,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선도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전시관에선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이프랜드 글로벌 및 HMD 버전', 볼류메트릭 기술로 K팝 콘서트를 실감나게 즐기는 '점프스튜디오', 국산 AI 반도체 '사피온', 커넥티드 인텔리전스가 접목된 미래 모빌리티 UAM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직접 대형 로봇팔을 타고 가상 미래 세계(메타 플랫폼)를 체험하는 '4D 메타버스', 비대면으로 전시 아이템을 소개하는 '원격 도슨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메타버스 개념을 적용해 단순 상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입장부터 퇴장까지의 모든 관람 과정에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도 현장을 찾

아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알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글로벌 사업자들과 협력 확대에 나선다. 유 사장은 "5G 상용화 이후 지난 3년간 이프랜드, AI반도체, 양자암호같은 성공적 사용 사례와 결과물들이 구체화됐다"며 "올해 MWC는 이러한 SKT의 핵심 서비스와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KT, 방역로봇 첫 선  
KT도 3년 만에 MWC에 복귀해 '디지털 혁신의 엔진, 디지코 KT'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한다. GSMA 공동관인 인터스트리 시티에 위치한 KT 전시관은 AI와 로봇, KT그룹&파트너 3개 존으로 구성된다. AI존에서는 교통 흐름을 분석해 최적의 신호를 도출하는 기술인 '트래픽 디지털 트윈', 모바일 에지 컴퓨팅을 기반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하이브리드 5G MEC 플랫폼', 사용자 움직임 AI로 비교·분석하는 '리얼 댄스', AI로 5G 기지국과 국사를 감

시하는 기술인 '닥터 와이즈' 등을 선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서비스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AI컨택센터(AICC)의 기술과 적용사례도 내놓을 예정이다.

로봇존에는 이번 행사에서 처음 공개하는 'AI 방역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을 출품한다. 방역로봇은 향후 '에어맵 코리아'와 함께 실내공기가 나쁜 곳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청정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을 찾지 못한 관람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메타버스 전시관 '디지코 랜드'를 열어 안방에서도 KT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참관단을 보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5G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아마존, 퀄컴 등 빅테크 기업과 삼성전자, 노키아 등 통신장비·단말 제조사 부스를 방문해 올해 사업방향과 ICT 트렌드를 탐색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신학기 특수 잡아라" e커머스 할인 경쟁

쿠팡·위메프 등 필수 아이템 특가 판매

전자상거래(e커머스) 서비스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관련 상품을 모은 기획전을 연다.

쿠팡은 3월 1일까지 '신학기 준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학기 필수 아이템을 한정 특가로 선보인다. 학생들을 위한 패션·잡화, 참고서, 노트북, 문구용품부터 선생님들을 위한 사무용품과 공부방 가구&인테리어 소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했다. 쿠팡과 위메프 회원이라면 프로모션 기간 동안 최대 20% 할인되는 추가 고객 혜택이 주어진다.

위메프는 28일까지 '신학기 준비' 기획전을 연다. 새 학기 필요한 제품을 총망라해 선보인다. '새학기 필수템 가전·가구'와 '등장부터 남다른 패션', '첫걸음 준비 등원·등교', '신학기 건강준비 꿀' 등 4개 테마관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큐레이션한다. 21일부터 이벤트도 진행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친구에게 특가 이벤트를 공유하면 랜덤으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행사를 가장 많이 공유한 1~3위 고객에게는 20만 위메프 포인트를 지급한다.

한편 G마켓과 옥션도 22일까지 36개 브랜드관과 5개 테마관에서 삼성과 LG, 애플 등 100여개 인기 브랜드사 제품을 특가에 만나볼 수 있는 '디지털 가구 빅세일'을 진행한다.

김명근 기자

## 티몬, 해외여행 기획전...반값 이벤트도

티몬은 모두투어와 '지금, 해외여행' 기획전을 열고, 하와이 등 주요 휴양지부터 스페인, 시드니까지 12개 해외 지역의 현지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랜선으로 해외여행 감성을 달래고 미리 해외여행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영상 공개 뿐 아니라 미리 할인 혜택을 선점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28일까지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추후 판매될 해외여행 상품 구매 시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와이와 사이판, 괌, 방콕, 싱가포르, 시드니를 비롯해 베트남 다낭, 나트랑, 푸꾸옥 지역별 당첨자는 동반자 50% 할인권 혜택이 지원된다.

가고 싶은 여행지 영상이 담긴 상품 페이지의 상품문의란에 떠나고 싶은 이유, 지역과 관련된 사연 등을 남기면 된다. 각 지역별 베스트 댓글을 1명씩 추첨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편진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 '삼성 TV' 세계 점유율 16년 연속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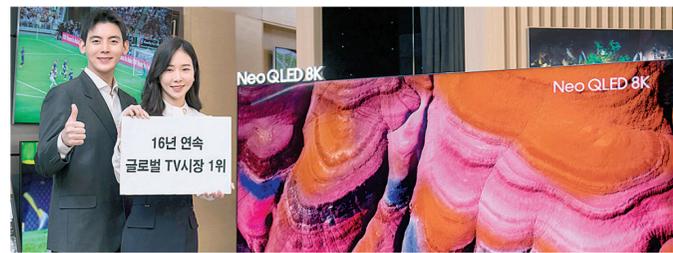
지난해 30%...프리미엄 전략 주효  
LG전자는 18.5%로 역대 최대 기록

삼성전자가 전 세계 TV 시장에서 16년 연속 1위에 올랐다. LG전자도 역대 최대 점유율을 기록했다.

20일 시장조사업체 오피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29.5%, 수량 기준 19.8%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QLED를 중심으로 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삼성전자는 2006년 기준 TV의 틀을 깬 '보르도 TV'로 1위에 오른 뒤, 2009년 LED TV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았다. 또 2011년 '스마트TV', 2017년 퀀텀닷 기술로 화질을 높인 'QLED TV', 2018년 3200만 화소를 탑재한 'QLED 8K'를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퀀텀 미니 LED를 적용하고 화질·디자인·사운드 등이 완전히 새로워진 '네오 QLED'와 가정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진화한 '마이크로 LED'를 출시했다. 이 밖에도 가구와 TV의 경계를 허문 '더 세리프', 집안을 갤러리로 바꿔주는 '더 프레임', 가로·세로 회전이 자유로운 '더 세로', 아웃도어 TV '더 테라스', 4K 화질의



삼성전자 TV가 16년 연속 글로벌 시장 1위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네오 QLED'. 사진제공 | 삼성전자

빔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나만의 스크린을 구현한 '더 프리스타일'까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해왔다.

LG전자도 역대 최대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금액 기준 LG전자의 TV 시장 점유율은 18.5%다. 중저가 제품 판매 확대가 아닌 최상위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거둔 성과라는 것이 LG전자 측 설명이다. 그 중심에는 올레드 TV가 있다. 지난해 LG 올레드 TV 출하량은 404만 8000대로 2020년과 비교해 2배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TV 출하량은 2020년보다 1193만2000대가 줄어든 2억 1353만7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김명근 기자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21일 (월) 음력: 1월 21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땅 속의 씨가 짙어 터져 파듯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새끼는 봄이란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때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취업시험 합격과 면접과의 거래성사가 있는 날이다.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끈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서두르지 말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사방이 위협으로 막혀있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음주가무를 피하라.	무슨 일이나 자신감이 충만하여 실수하기 좋은 날이다. 좌충우돌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다.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신중한 자세만이 앞날을 밝게 할 것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민중산에 심어진 묘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온 산을 초록으로 덮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은 비탈 수 없으나 착실하게 순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망신수가 따를 수 있다.	감정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날이다. 매사 일회일비 하다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교제비를 많이 쓸 수도 있다. 침착한 자세로 머리를 써라. 오늘 은 여마의 날이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아가면 상대가 움츠러든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바라지 말라.	무슨 일에서나 외견상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해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겸손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다려라.	만사가 흥통하는 운이나 큰일을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오늘의 날씨			21일(월)		
서울 30/30	인천 30/30	춘천 40/60	강릉 0/0	대전 20/20	전주 20/20
광주 20/20	대구 10/20	부산 0/10	창원 0/10	제주 2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69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계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